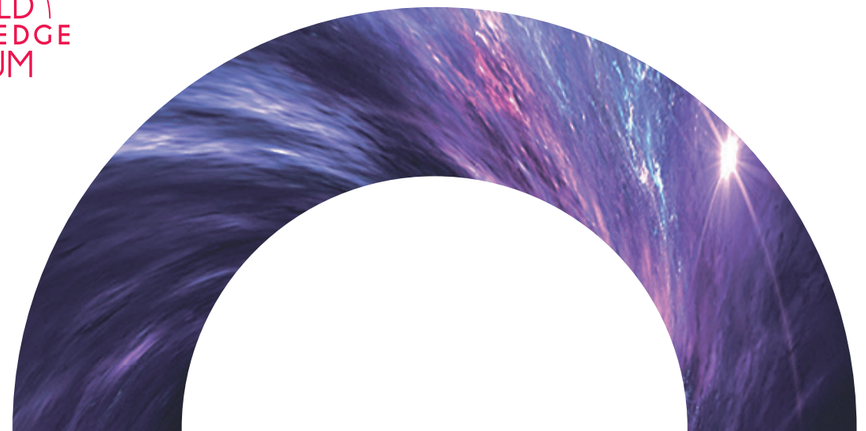
TECHNO BIG BANG:
HUMANITY
ON THE SHOULDERS
OF GIANTS

2023. 9. 12~14

Seoul, Korea

WORLD KNOWLEDGE FORUM



세계지식포럼 사무국

(우)0462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
(필동1가, 매경미디어센터) 4층

전화: (02)2000-2620

일반문의: knowledge@mk.co.kr

등록문의: wkforumreg@gmail.com

매일경제 MBN

TECHNO BIG BANG:
HUMANITY ON THE SHOULDERS OF GIANTS

2023. 9. 12~14

Seoul, Korea

WORLD KNOWLEDGE FORUM

WORLD
KNOWLEDGE
FORUM

세계지식포럼의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BI)는 세계지식포럼을
중심에 둔 세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세계지식포럼 집행위원장

장 대 환

MESSAGE FROM THE CHAIRMAN

세계지식포럼이 올해로 24회를 맞이했습니다.

세계지식포럼은 매년 가장 앞선 지식을 선보이는 지식의 축제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지식포럼은 가장 중요한 글로벌 현안을 찾아내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에 대한 견해를 나누도록 자리를 만든 뒤 그들이 나눈 이야기들을 널리 알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발달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민들에게 지식을 전파하는 글로벌 지식 생산 공장의 역할도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지식포럼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포럼을 넘어 세계 최고의 포럼을 목표로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제24회 세계지식포럼은 지정학적, 지경학적 변동성이 극대화된 불안정한 시기에 개최됩니다. 열강들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주변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첨단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줄 것이란 희망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업과 정부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에 힘입어 인공지능(AI)을 필두로 양자컴퓨팅, 바이오, 로보틱스, 기후변화대응 기술 등 각 분야에서 놀랄 만한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몇 년 안에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거대하고 급격한 새로운 기술의 흐름에 올라타지 못한 국가와 기업은 도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올해 세계지식포럼 주제를 '테크노 빅뱅: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인류(Techno Big Bang: Humanity on the Shoulders of Giants)'로 정했습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인류'란 표현은 12세기 사상가들이 쓴 문헌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 이후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경이 동료 과학자인 로버트 훅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란 표현을 쓰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뉴턴 경은 선대 과학자들이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더 큰 발견이나 발명을 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이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이룬 기술 발전을 발판으로 더 큰 성취를 거둘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올해 세계지식포럼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올해도 세계지식포럼에서 세계 최고의 석학들, 글로벌 전문가들을 만나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지식포럼이 열리는 사흘 동안 참가자들은 인류의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최고의 지식으로 보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WORLD KNOWLEDGE FORUM 2023

세계지식포럼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뒤 창조적 지식국가 대전환을 목표로 2년여간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출범했다. 그동안 세계지식포럼은 지식 공유를 통한 지식격차 해소, 균형 잡힌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공해왔다.

'지식으로 새 천년 새 틀을 짜다'라는 주제로 첫 포럼이 열린 후 지금까지 총 5,518명의 글로벌 연사와 5만9218명의 청중이 참여해 세계지식포럼을 명실상부한 지구촌 최대 지식축제로 만들었다.

조지 W 부시 제43대 미국 대통령, 테리사 메이 제76대 영국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제23대 프랑스 대통령, 게르하르트 슈뢰더 제7대 독일 총리 등 국가 정상들,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국제기구 대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존 헤네시 알파벳 회장,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 회장 등 기업인, 래리 서머스, 폴 크루그먼, 마이클 포터, 그레고리 맨큐 등 석학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계의 미래를 고민했다.

올해 24회를 맞는 세계지식포럼에서는 '테크노 빅뱅: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인류(Techno Big Bang: Humanity on the Shoulders of Giants)'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폴 로머 NYU 스턴경영대학원 교수(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밥 스턴펠스 맥킨지 회장, 앤서니 파우치 전 미국 국립알레르기 · 전염병연구소 소장,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부 장관, 게리 마커스 NYU 교수, 제니 존슨 프랭클린 템플턴 회장, 호세 펠리시아노 첼시 공동구단주 겸 클리어레이크캐피털그룹 CEO, 돈 톰프슨 전 맥도날드 CEO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숫자로 보는 세계지식포럼

WORLD KNOWLEDGE FORUM IN NUMBERS
2000~2022

59,218

포럼 참가자

23년의 세계지식포럼 기간 중 국내외 정계, 학계, 기업 등 각계각층의 참가자들이 '지식의 향연'을 즐겨 왔습니다.

5,518

연사

조시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등 정치, 경제, 산업계의 글로벌 연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82

국가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등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세계지식포럼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1,701

세션

세계지식포럼에서는 해마다 경제, 산업, 정치, 문화, 예술, 미래, 기후변화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집니다.

2000
지식으로 새 천년 새 틀을 짠다
Shaping the New Millennium with Knowledge

2001
지식기반 경제시대 인류공영을 위한 비전의 모색
Drawing the Roadmap for Knowledge Economy and Global Prosperity

2002
위기를 넘어, 새로운 번영을 향해
Knowledge in a World of Risk: A Compass towards New Prosperity

2003
인류번영을 위한 새로운 세계질서와 경제의 창조
Creating a New World Order and Economy

2004
파트너십을 통한 세계경제의 재도약
Partnership for Renewed Growth

2005
창조와 협력: 새로운 시대를 위한 토대
Creativity and Collaboration: Foundation for the New Era

2006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2007
부의 창조와 아시아 시대
Wealth Creation & Asia

2008
협력의 마법 & 아시아 시대
Collabonomics & Greater Asia

2009
하나의 아시아, 신 경제질서 그리고 경기회복
One Asia: New Economic Order & Recovery

2010
원 아시아 모멘텀, G20리더십 & 창조적혁신
One Asia momentum, G20 Leadership & Creatinnovation

2011
신 경제 위기: 글로벌 리더십의 변혁과 아시아의 도전
The New Economic Crisis: Reforming Global Leadership & Asia's Challenge

2012
위대한 도약 글로벌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
The Great Breakthrough: New Solutions for Global Crisis

2013
원아시아 대변혁
The One Asia Metamorphosis

2014
세계 경제 새로운 태동
Invigorating the Global Economy

2015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서
Mapping the Zeitgeist

2016
대혁신의 길
Aiming for Great Instauration

2017
변곡점을 넘어, 새로운 번영을 향해
Inflection Point: Towards New Prosperity

2018
집단지성: 글로벌 대혼란 극복의 열쇠
Collective Intelligence: Overcoming Global Pandemonium

2019
지식혁명 5.0: 인류 번영을 위한 통찰력
Knowledge Revolution 5.0: Perspicacity Towards Prosperity for All

2020
팬데노믹스: 세계 공존의 새 패러다임
Pandenomics Perspective: Shaping New Global Symbiosis

2021
테라 인코그니타: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
Terra Incognita: Redesigning the Global Architecture

2022
초과회복: 글로벌 번영과 자유의 복원
Supercompensation: Restoring Global Prosperity & Freedom

제24회 세계지식포럼 주제 소개

TECHNO BIG BANG:
Humanity on the Shoulders of Giants

테크노 빅뱅: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인류

기술 혁신의 속도가 눈부시다. 인간의 사고를 따라잡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여겼던 인공지능(AI)이 일정 분야에서는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컴퓨터들과는 비교도 안되게 빠른 연산 속도를 자랑하는 양자컴퓨팅 기술도 이미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바이오 기술 연구자들은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체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로보틱스 기술은 빅데이터, AI 등 다른 첨단기술들과 결합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기술들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고 인류의 번영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강대국 사이의 대립과 분열로 인해 자유, 민주주의 등 그동안 인류가 지켜온 소중한 가치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첨단기술 혁신이 인류에게 새로운 유토피아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본다.

클러스터 소개

CLUSTER INTRODUCTION

2023년 세계지식포럼에서는 개별 세션을 주제별로 묶은 '클러스터'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합니다.
그동안 세계지식포럼에서 다뤄온 다양한 주제의 세션들을 그룹을 지어 '클러스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클러스터는 AI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5~6개 세션들로 구성됩니다. 이번 세계지식포럼에서 AI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AI클러스터에 속한 세션부터 들으면 됩니다. 최첨단 기술 분야 클러스터를 비롯해 그동안 지식포럼에서 다뤄온 기업경영과 산업, 거시경제 관련 테마, 투자와 금융, 문화예술 부문의 개별 세션들도 주제별 클러스터로 묶습니다. 일례로 국내외 재테크 관련 세션을 듣길 희망하는 참가자는 투자와 금융부문 클러스터에 속한 개별 세션 위주로 참여하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의 주제를 잘 보여주는 5대 첨단 기술 관련 클러스터와 다른 주요 클러스터 5개를 소개합니다.

01. AI

인공지능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지난해 말 공개된 챗GPT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게 만들었다.

이전까지의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에서 인간을 보조해주는 잘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챗GPT는 과거의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해 순식간에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답변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지금 같은 속도로 챗GPT가 발전한다면 많은 분야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이 범죄에 사용될 경우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AI클러스터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을 짚어주고 인공지능이 바꾸어놓을 인류의 미래상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어떻게 관리해야 인류의 번영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색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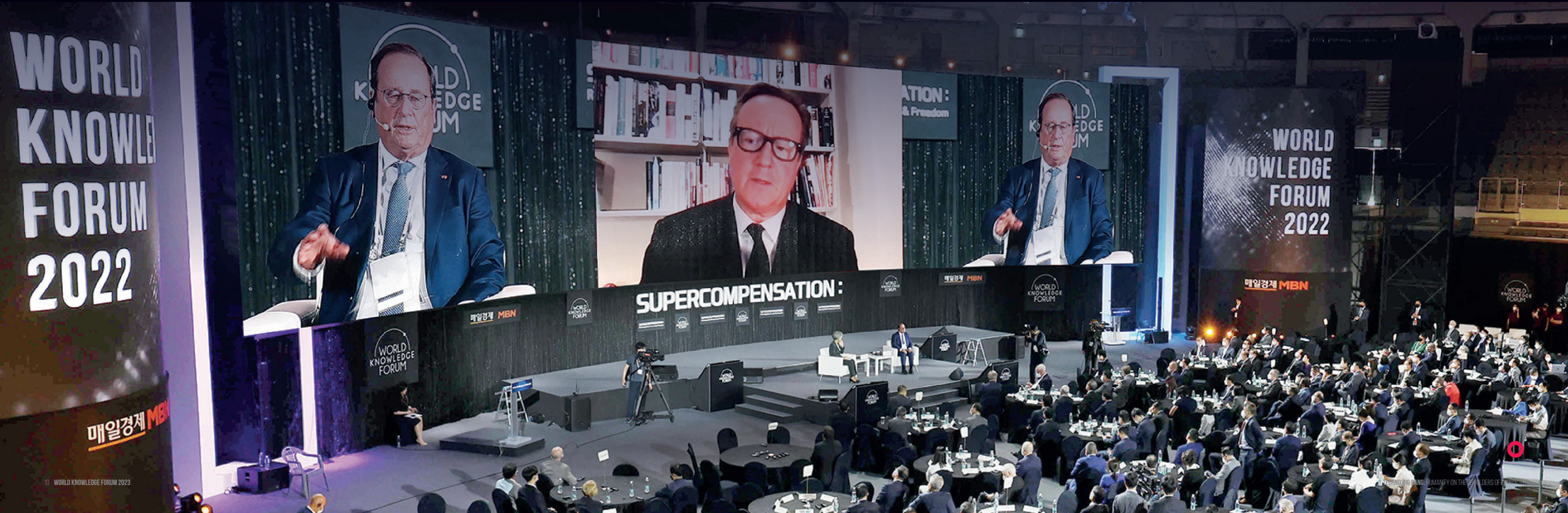
02. 퀀텀 컴퓨팅

상상을 초월한 연산,
미래를 향한 '퀀텀점프'

연산 속도가 기존보다 수천 배 이상 빠른 양자컴퓨터(퀀텀 컴퓨팅)가 보편화되면 인류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금융, 제약, 기상 예보, 소재 개발 등의 분야에서 양자컴퓨터(퀀텀 컴퓨팅)가 빠르게 확률을 계산하면서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일상생활에서도 교통량 및 교통신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목적지까지 최적의 이동 동선을 만들어주거나 교통 혼잡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점심시간 고층 빌딩 엘리베이터의 최적화된 움직임을 계산하는 것도 양자컴퓨터(퀀텀 컴퓨팅)의 도움을 받으면 순식간에 가능해진다. 하지만 현재의 디지털 암호체계를 순식간에 뚫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컴퓨터(퀀텀 컴퓨팅)가 사이버 보안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양자컴퓨터(퀀텀 컴퓨팅)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으며 현재 직면한 한계는 무엇인지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들어본다.



03. 로보틱스

로봇의 오늘,
내일, 그리고 미래

어느새 로봇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어느 식당에서든 종업원을 대신해 음식을 가져다주거나 커피를 만들어주는 로봇을 만날 수 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이에 따라 로봇의 본체를 구성하는 소재 및 동력 등 기계적 부분에서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로봇의 발전 속도는 급속도로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나라들에서 인간을 대체할 로봇의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수요는 물론이고 공급 측면에서도 로봇 생산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대량으로 공급된 로봇이 인간을 도와줄 세계를 미리 탐험해보자.

04. C-TECH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도전, '넷제로'

홍수와 폭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등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구촌의 미래를 위해 탄소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을 낮추고 공기 중 탄소를 포집해 제거하는 기술들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이 분야에 대한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탄소세를 도입해 기후 변화와 관련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그런만큼 한국 기업들이 이 같은 무역장벽을 어떻게 극복할지 C-Tech 클러스터에서 논의한다. 아울러 탈탄소 기술이 인류에게 지속적인 번영을 가져다주기 위해선 각 경제주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해본다.

05. 바이오

생체시계를 되돌리는
'리버스 에이징'의 세계

그동안 인류는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국 진나라를 세운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기 위해 전 대륙을 뒤졌고 서양의 연금술사들은 생명수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현대의 과학자들도 과학의 힘으로 수명을 연장하거나 젊음을 되돌리려는 수많은 시도를 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제프 베이조스 등 테크 업계의 거물들은 이 분야에 앞다퉈 투자를 시작했고 그에 따라 바이오 분야 기술 발전은 가속도가 붙은 상태다. 그동안은 노화 속도를 늦추는 안티에이징(Anti-Aging)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최근 생체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젊음을 되찾으려는 리버스에이징(Reverse-Aging)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노화를 늦추고 젊음을 되찾으려는 기술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으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06. 지오폴리틱스

요동치는 국제질서 속
각국의 선택

미·중 패권 경쟁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먼 외국에서 벌어진 일들이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오폴리틱스(지정학)'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21세기의 역사는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응전으로 쓰일 것"이라는 리콴유 초대 싱가포르 총리의 언급처럼 21세기 들어 G2로 부상한 중국과 기존 패권국인 미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갈등부터 전기차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대표적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해를 넘기고 있다. 지정학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생존전략을 짜야 하는지 국제정세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07. 이코노미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아서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이란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꺼졌다.

미국은 조만간 인플레이션의 후폭풍을 겪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은 제조업 수출 하락, 인프라 투자 축소, 부동산 침체 등의 악재를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정학적 혼란에 따른 글로벌 협력관계의 균열과 이로 인한 에너지 · 공급망 붕괴도 리스크 요인이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요인만 가득한 것은 아니다. 물가 상승 속도 둔화와 시중금리의 하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여전히 활발하다는 사실도 긍정적이다.

이코노미 클러스터에서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의 글로벌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탄탄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 회복 시점은 언제쯤인지,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은 무엇일지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견해를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08. 파이낸스

불확실성 시대의
투자전략

각국의 긴축정책은 투자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긴축의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는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눈치보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불확실한 투자시장에서 이익을 내려는 투자자는 남들보다 한 박자 빨리 행동하고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위험 대비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

세계지식포럼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자산투자 관계자들을 초청해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통적인 자산운용사가 말하는 자산 배분 전략부터 글로벌 사모펀드 대표가 들려주는 대체투자 전망을 통해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본다.

09. 미래산업

일상 속으로
들어온 미래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은 제조업과 농업,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 분야에 극적인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결합된 미래형 무인공장에서 로봇들이 재활용된 재료를 이용해 자동차, 의류 등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일은 더 이상 이야깃거리도 아니다.

생명공학의 발달은 실험실에서 배양한 고기를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나노 기술은 식품의 맛을 증대시키거나 영양소 흡수를 돕는 데 활용된다. 항공우주 과학의 발전은 우주관광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했으며 소형모듈원자로(SMR)의 도움으로 인류는 극한 환경 속에서도 에너지를 걱정할 필요 없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모빌리티 기술 혁신은 자율주행을 넘어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설과 영화 속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미래산업, 기술이 바꿀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토론이 이어진다.

10. MBA

기업 경영의
최신 트렌드를 한 눈에

기업들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정치는 불안해지고 경제도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교한 미래 전략과 확신을 줄 수 있는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글로벌 경영대학원들이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청중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해 알려준다. 미국 최고의 경영대학원 중 하나인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은 AI와 블록체인 등의 기술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프랑스 파리의 공립 경영대학원 HEC Paris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들의 경영전략 비밀을 공개한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명문 대학원인 IE경영대학원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가와 비즈니스 위기관리 등에 대해 청중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강의를 통해 들려줄 예정이다. 중국 최초의 사립 경영대학원인 장강경영대학원에서는 상빙 총장이 직접 나서 혁신적인 기업들의 경영전략에 대한 혜안을 제공한다.

연사 소개

SPEAKER INTRODUCTION

스티브 워즈니악
Steve Wozniak
애플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은 실리콘밸리의 상징과 같은 존재로 30년 이상 컴퓨팅 산업을 이끌어 왔다.

1976년 워즈니악은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 컴퓨터를 창업했다. 1년 후, 워즈니악은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컬러그래픽 및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가 탑재된 애플 II 개인용 컴퓨터를 선보였다. 애플 II는 개인용 컴퓨터 산업이 시작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워즈니악은 미국 발명가명예의전당(National Inventors Hall of Fame)에 입성했다. 또 워즈니악은 휴대가 가능한 첫 번째 개인용 컴퓨터를 디자인한 공로 및 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교육에 대한 흥미를 북돋는데 기여한 공로로 2001년 하인츠 어워드(Heinz Award)를 수상했다.
그는 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자서전인 'iWoz: 컴퓨터 괴짜에서 컬트아이콘으로'의 저자이기도 하다.

샘 올트먼
Sam Altman
오픈AI CEO

샘 올트먼은 ChatGPT와 DALL-E를 개발한 인공지능(AI) 연구 및 배포회사인 OpenAI의 공동 창업자 겸 CEO이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초기 단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Y Combinator의 대표를 역임했고 2015년에는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범용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는 사명으로 비영리 연구소인 OpenAI를 공동 창업했다.
2022년 11월 대화형 AI 서비스인 'ChatGPT'를 선보이면서 전 세계적인 AI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올트먼은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을 전공하다 2005년 중퇴했다.
2023년 타임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됐다.

론 클레인
Ron Klain
제30대 백악관 비서실장

론 클레인은 미국 민주당 정권 중 가장 오래 재임한 초대 비서실장(2021~2023)으로 조 바이든 정부의 백악관 직원들을 감독하고 내각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에 대해 "강렬한 지성과 마음을 가진 한 세대에 한 번뿐인 재능"이라고 평가한 바 있으며, 또한 그는 중간선거에서 초당적인 입법 성과와 사법부 지명에 초점을 맞춰 백악관을 예상치 못한 승리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타임'지가 발표한 100명의 글로벌 리더 목록에 선정되었다.
클레인은 2005년 설립된 투자 회사인 레볼루션 LLC (Revolution LLC) 부사장으로 10년 이상 재직했으며, 현재 글로벌 법률 회사인 오멜버니(O'Melveny's)의 소송 부서 파트너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테크넷(TechNet) 이사회 회원, 민주주의 전진 재단(Democracy Forward Foundation), 세계경제포럼의 세계보건안보 프로젝트와 전염병 종식 프로젝트의 외부 자문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클레인은 바이든,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대통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앨 고어, 존 케리, 힐러리 클린턴의 토론 준비 고문으로 일하면서 8번의 대통령 선거 운동에 참여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Hatoyama Yukio
제93대 일본 총리

일본의 케네디가(家)로 불리는 정치 명문가문 출신이다.

증조할아버지가 1890년대 말 중의원 의장을 지냈다. 할아버지는 1954년 민주당을 결성해 총리를 역임하고 자유당과 합당해 지금의 여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을 탄생시켰다.
아버지는 외무대신과 참의원 3선 의원을 지냈다.
그는 2009년 8월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을 이끌며 정권교체를 이뤄냈으며 제 93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단독정당이 중의원(480석)의 308석을 차지한 것은 당시 일본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총리 사임 후에는 자신이 설립한 싱크탱크인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를 통해 한국과 중국 등지를 오가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이다.
2015년 8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된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해 유관순 열사가 머물던 감방에 헌화했으며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우애(友愛)사상'을 정치 철학으로 삼고 있다. 자신의 존엄을 존중할 때 이타심이 발동하고 상대방과도 진정한 우정이 맺어진다는 사상이다.

일랑 고우드파잉
Ilan Goldfajn
IDB 총재

일랑 고우드파잉은 2022년 11월 20일 IDB총재로 선출됐다.

그는 2022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서반구 담당 디렉터로 근무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는 IMF에서 경제학자로 근무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브라질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의 총재로 근무했고, 2017년에는 더뱅커(The Banker)가 뽑은 세계 최고의 중앙은행 총재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우드파잉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Universidade Federal에서 경제학 학사학위를, Pontificia Universidade Catolica에서 석사학위를, 그리고 미국 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영어와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에릭 애덤스
Eric Adams
뉴욕시장

에릭 애덤스 시장은 뉴욕 경찰관, 주 상원의원, 브루클린 자치구 대통령, 그리고 현재 뉴욕시의 110대 시장으로 뉴욕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그는 5개 자치구에서 노동자 가족을 위해 목소리를 냈고 뉴욕의 경제를 되살리고 불평등을 줄이며 공공 안전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더 강하고 건강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애덤스 시장은 평생 동안 뉴욕에서 살아온 뉴요커다. 그는 마리스트 칼리지(Marist College)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뉴욕 기술 대학(New York City Technical College)과 존 제이 형사 사법 대학(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을 졸업했다.
그는 베드퍼드-슈투이베산트에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
그는 영화제작자 지망생이자 아메리칸 대학을 졸업한 조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이다.

연사 소개

SPEAKER INTRODUCTION

제임스 매티스
James Norman Mattis
전 미국 국방부 장관

매티스 전 장관은 지식인, 전략가로 잘 알려진 퇴역 해병대 장군이다.

50년에 가까운 복무 기간 내내 모범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 해병대 보병 장교로 40년 이상 복무했고 국방부 장관실, NATO 연합군 총사령관, 중동과 남아시아 전역의 25만명 미군과 연합군을 이끄는 미국 중부군사령관으로 근무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첫번째 국방부 장관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12월까지 제26대 미국 국방부 장관직을 역임한 뒤 사임했다.

재러드 스파타로
Jared Spataro
마이크로소프트 모던 워크 및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부문 기업 부사장

재러드 스파타로는 마이크로소프트 (MS) 모던워크 (Modern Work) 및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Business Application) 부문을 이끌며, 모든 기업과 개인이 빠르게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이의 일환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미래의 업무 방식과 비즈니스 예측을 보다 구체화하는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고객과 파트너, 커뮤니티를 위한 데이터, 인사이트 및 기술 제공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 패스트 컴퍼니(Fast Company), 포춘(Fortune) 등 해외 유수 매체에 기고하고, 비바테크(VivaTech), 월스트리트저널 CIO 서밋(Wall Street Journal CIO Summit), 블룸버그 워크 시프팅 서밋(Bloomberg Work Shifting Summit) 등 다수의 행사에 연사로 참석해 일의 미래(Future of work)에 대한 그의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 스파타로는 2006년에 MS에 입사하여 마케팅, 제품 관리 및 비즈니스 관리에 중점을 둔 여러 팀을 이끌고 있으며, MS 입사 이전에는 엔지니어링, 제품 관리, 제품 마케팅, 비즈니스 관리 및 영업 분야의 기술 회사에 재직했다. 그는 미국 브리검영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 학위를, MIT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다.

앤서니 파우치
Anthony Fauci
전 미국 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장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38년 동안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NIAID)의 소장을 역임했으며, 50년 이상 공직을 맡았다.

7명의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고위직을 역임한 파우치 박사는 HIV/AIDS, 팬데믹 인플루엔자,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와 코로나19 (COVID-19)를 포함한 새로운 감염병 위협에 대한 의료 및 공중보건 대응을 주도했다.
파우치 박사는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으로 인해 신뢰를 얻었으며, 이는 그의 공직생활 동안 정책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는 미국과 전 세계 대학에서 58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내과, 감염병, 자가면역질환에 관한 주요 교과서를 포함한 1400여 권의 과학 출판물을 저술, 공저, 편집한 바 있다.

존 레이먼드
John Raymond
전 미국 우주군참모총장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우주 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한 레이먼드 장군은 38년이 넘는 군 경험을 가진 성공적인 리더다.

그는 우주 군사작전의 미래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미국 우주군(U.S. Space Force)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 우주군은 70여년 만에 처음 만들어진 미군의 새로운 군 지부다. 2023년에는 세계 최초의 상업 우주 정거장을 설계하고 상업용 우주여행을 시도하는 선도 기업인 엑시옴스페이스(Axiom Space)의 이사회에 합류했다. 그는 우주에서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폴 로머
Paul Romer
보스턴칼리지 교수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는 보스턴칼리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새로 설립된 아이디어 경제 센터(Center for the Economics of Ideas)를 이끌고 있다.

2018년에는 희소한 물리적 대상에 대한 전통적인 경제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아이디어의 경제학'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보스턴칼리지에 오기 전에는 뉴욕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버클리대학교, 시카고대학교, 로체스터대학교에서 가르쳤다.
2001년에 교육 기술 회사인 Aplia를 창업하여 2007년에 Thomson Learning(곧 Cengage Learning으로 분사됨)에 매각했다.
로머는 2002년에 아이디어 경제학에 대한 연구로 레크텐발트 상을 수상했고, 현재 미국 국립경제연구국 연구원, 미국 예술과학아카데미 펠로, 온타리오주 오타와에 있는 맥도널드-로리어 연구소의 비거주 학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Douglas W. Diamond
시카고대 교수
(202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이아몬드는 은행과 금융위기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로 202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다이아몬드는 금융 중개인, 금융 위기, 유동성에 대한 연구를 전문으로 한다. 그의 주요 연구 주제는 금융위기와 뱅크런(Bank-run)이다.
그는 정부가 예금 보험이나 은행의 구제 금융 대출을 통해 금융위기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은행이 예금주와 대출자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대출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대출이 양질의 투자에 사용되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도 증명했다.
그의 연구는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현대 은행 규제의 이론적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79년부터 시카고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의 금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사 소개

SPEAKER INTRODUCTION

제니 존슨
Jenny Johnson
프랭클린 템플턴 최고경영자

제니 존슨은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Franklin Templeton)의 사장이자 최고 경영자다.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그녀는 투자 관리와 기술, 혁신, 다양성, 기업 및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프랭클린 템플턴을 오늘날 가장 존경받는 글로벌 기업 중 하나로 변모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녀는 여러 비영리 단체에 활발히 참여해 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 그녀는 2020년부터 미국의 투자전문지 배런이 선정하는 '미국 금융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4년 연속 이름을 올렸고,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마크 로완
Marc Rowan
아폴로자산운용 CEO

마크 로완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공동 창립자 겸 CEO다.

그는 현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아테나 홀딩, 아토라 홀딩의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와튼 스쿨의 자문위원회 의장이자 펜실베니아 대학교 이사회 위원이다.
또한 공공 정책에 관여하고 있으며 공공 정책의 재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초당파적 연구 이니셔티브인 펜 와튼 예산 모델(Penn Wharton Budget Model)개발에 초기 자금 지원자이자 기여자다. 활발한 자선사업가이자 시민운동가인 로완은 청소년 재생 기금의 창립 멤버이자 의장이며, 2만5000명 이상의 소외 학생을 대상으로 45개 학교를 운영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교육 네트워크인 Darca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로완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경영대학원에서 재무학 학사 및 MBA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타미르 파르도
Tamir Pardo
전 모사드원장

타미르 파르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원장으로 재직했다.

파르도 전 원장은 1979년 모사드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2011년 원장직에 오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파르도 원작은 퇴임 후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업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사이버 보안업체 'XM 사이버(XM Cyber)'를 설립했다.

게리 마커스
Gary Marcus
NYU 교수

게리 마커스는 인지과학 및 인공지능 분야의 선도적인 인물로, 뉴욕대학교 심리학 및 신경과학 명예교수이다.

현대 인공지능이 지닌 한계를 수십 년 전에 미리 예측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30년 동안 뉴로-심벌릭(Neuro-symbolic) AI 모델을 주도적으로 옹호해왔다.
베스트셀러 "Guitar Zero"를 포함한 다섯 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2001년 저서 "Algebraic Mind"는 현재 AI 시스템을 괴롭히는 환각 문제를 예견했다. 어니스트 데이비스와 공저한 "Rebooting AI"는 인공지능에 접근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포브스가 선정한 인공지능 분야 필독서 7권 중 하나로 꼽힌 바 있다.
스티븐 핑커의 지도를 받은 그는 23세에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년간 뉴욕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6년 Uber에 인수된 머신러닝 회사인 Geometric Intelligence를 창립하고 CEO가 되었다.

크리스 밀러
Chris Miller
〈칩 워〉 저자

크리스 밀러 교수는 국제 정치, 경제 및 기술 분야의 전문가다.

그는 '칩 워: 누가 반도체 전쟁의 최후 승자가 될 것인가'의 저자다. 이 책은 파이낸셜타임즈가 선정하는 올해의 최고 비즈니스 도서상을 수상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책을 '논픽션 스릴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밀러 교수는 터프츠대 플레처스쿨의 국제 역사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플레처스쿨의 '러시아와 유라시아 프로그램'의 공동 디렉터이기도 하다.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초빙연구원이며 경제자문기업인 그린맨틀(Greenmantle)의 이사로도 활동중이다. 예일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하버드대에서 역사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마하엘 쇨호른
Michael Schoellhorn
에어비스 D&S CEO

2021년 7월 1일부터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 최고경영자(CEO)를 맡아 회사를 이끌고 있다.

에어버스 집행위원회 멤버로서 에어버스의 국방, 우주, 무인 항공 서비스 및 관련 정보 활동을 책임지고 있다. 그 전에는 에어버스 최고운영책임자(COO)이자 최고경영위원회 멤버였다. 그는 생산, 품질, 조달, 정보 관리 조직을 이끌며 미래의 생산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구축했다. 그는 현재 독일 항공우주산업협회 (BDLI) 회장단(member of the presidency), 독일 에어버스 경영감독위원회 회장, 미국 에어버스 디펜스&스페이스 전무와 이사회 회원, 그리고 스트라타시스이사회 회원을 맡고 있다.
헬무트슈미트대에서 기계공학 학위와 제어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사 소개

SPEAKER INTRODUCTION

도브 모란
Dov Moran
그로브 벤처스
매니징 파트너

그로브 벤처스의 매니징 파트너인 도브 모란은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이스라엘 하이테크 리더 중 한 명이다.

그는 투자자이자 발명가, 기업가이며 USB 플래시 드라이브의 발명가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모란은 2006년 SanDisk가 16억 달러에 인수한 M-Systems를 설립했다.
또한 반도체와 및 집적 회로 개발, 제조업체인 Tower Semiconductors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대대적인 개편을 주도했다. 모란의 지도 아래 회사는 주목할 만한 호전을 달성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회사는 2022년 인텔에 54억 달러에 인수되었다.
그는 언스트앤영의 '올해의 기업가상', 에드워드 라인상, 존슨 정보 스토리지 시스템상, 넷익플로 올해의 인재상 등 여러 상을 수상했다. 이스라엘 법과학 아카데미 센터, 모스크바 국립 공과대학교, 이스라엘 공과대학 테크니온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첫 번째 저서인 '100개의 문 – 기업가정신 입문'은 2016년에 출간되었으며, 이 책에는 그가 걸은 독특한 길에서 얻은 통찰력이 담겨 있다.

모겐스 뤼케토프트
Mogens Lykketoft
에너지넷 의장

모겐스 뤼케토프트는 에너지넷의 감독위원회 의장이다.

1981년부터 2019년까지 덴마크 국회의원이었으며, 조세재정외교부 장관, 감사원장, 사회민주당과 덴마크 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제70차 유엔총회 의장을 맡았다.

마이클 저우
Michael Chow
빌리브 CEO

마이클 저우는 차세대 오픈 월드 게임에 중점을 둔 글로벌 스튜디오인 더 빌리버 컴퍼니 (The Believer Company)의 공동창립자 겸 CEO이다.

그는 15년 동안 플레이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라이엇게임즈 (Riot Games)의 부사장이자 리그오브레전드의 총괄 프로듀서로서 전 세계 1억명 이상의 모바일 게이머들에게 리그오브레전드의 강렬한 고난도 경쟁 액션을 선사했다. 열정적인 개발자이자 헌신적인 플레이어인 마이클은 리그오브레전드 경쟁 래더에서 그랜드마스터 '팔라딘 (Paladin)'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끈질기게 챌린저 등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라이엇게임즈에 입사하기 전에는 뉴토이(NewToy)의 공동 창립자 겸 COO로서, 사랑받는 모바일 게임 Words With Friends와 위드 프렌즈 프랜차이즈를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기여했다.

사친 판다
Satchin Panda
소크생물학연구소 교수

사친 판다 박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크연구소(Salk Institute)에서 생체주기리듬 (Circadian rhythms)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건강한 노화와 관련된 네 개의 주요 분야와 관련있다.
1. 인간 눈의 망막에서 청색광을 감지하는 신경을 발견한 판다 박사의 연구는 인간 중심의 조명을 건축 환경에 도입해 뇌 기능을 최적화하는데 이바지했다.
2. 판다 박사는 시간제한식사 혹은 간헐적단식을 통해 만성적인 질환을 예방하고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3. 유인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생체주기리듬의 유전체 연구를 통해 약물 투여시간을 최적화해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그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4. 다른 연구팀과의 협력을 통해 생체주기시계를 대상으로 한 약물이 간 질환, 암, 알츠하이머 등 만성질환 치료의 해결방안 중 하나임을 보여줬다.

밥 스턴펠스
Bob Sternfels
맥킨지앤드컴퍼니
글로벌 매니징 파트너

밥 스턴펠스는 맥킨지앤드컴퍼니의 글로벌 매니징 파트너이자 이사회 의장이다.

스턴펠스는 고객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개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포용적인 문화 속에서 뛰어난 인재를 유치, 개발, 유지한다는 맥킨지의 두 가지 사명에 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프리카 리더십 그룹 자문위원회의 창립 멤버이자 의장을 맡고 있으며, 미국 중국 비즈니스 위원회, 뉴욕시 일자리 위원회, FCLTGlobal의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아시아 비즈니스 협의회, 칭화 SEM 자문위원회, 한·중·일 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와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공부했으며 민간 조종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호세 펠리시아노
José E. Feliciano
클리어레이크 캐피털 그룹 CEO,
첼시 공동구단주

호세 펠리시아노는 2006년 베다드 에그발리와 함께 클리어레이크 캐피털을 공동 설립했다.

캘리포니아 샌타모니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사모펀드는 7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와 테크 기반 서비스 산업에 주로 투자한다. 클리어레이크 캐피털은 억만장자 투자자인 토드 볼리와 공동으로 영국의 명문 축구단인 첼시FC를 인수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난 펠리시아노는 골드만삭스에서 투자은행 업무를 담당했으며 테넌바움캐피털 파트너스의 투자위원회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4년에는 아내인 크완자 존스와 슈퍼차지드란 이름의 자선모금 및 임팩트투자 기구를 설립하기도 했으며 스탠포드대학의 이사회 위원이다.

연사 소개

SPEAKER INTRODUCTION

칼 베네딕트 프레이
Carl Benedikt Frey
옥스퍼드대 마틴스쿨 교수

칼 베네딕트 프레이는 영국 옥스퍼드대 마틴스쿨에서 '일의 미래' 프로그램의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프레이는 '일의 미래'와 기술이 어떻게 경제와 노동력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선도적인 학자로 꼽힌다. 그는 저서 '테크놀로지의 덫'에서 기술혁명과 그에 따른 사회·정치 변화에 대해 분석했고, 이 책은 2019년 파이낸셜타임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집행위원회, 유엔(UN) 등에서 자문과 컨설팅을 맡기도 했다. 이와 함께 파이낸셜타임스, 포린어페어스, 와이어드, MIT 테크놀로지리뷰,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필립 코틀러
Philip Kotler
미국 노스웨스턴대 켈로그경영대학원 석좌교수

필립 코틀러는 켈로그 경영대학원의 국제마케팅 석좌교수로 '현대 마케팅의 아버지'로도 불리고 있다.

1953년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1956년 MIT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22개의 대학에서 명예 학위를 받았으며 약 90권의 책과 170개의 저널 기사를 쓰기도 했다. 그는 다양한 국가의 수많은 기업을 컨설팅했으며 강의를 진행해왔다.
마케팅에 대한 저서 외에도 '다른 자본주의', '공공선의 증진(Advancing the Common Good)'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저술했다.

돈 톰프슨
Don Thompson
전 맥도날드 CEO

돈 톰프슨은 클리블랜드애비뉴의 설립자 겸 CEO이며, 전 맥도날드 사장 겸 CEO이다.

클리블랜드애비뉴는 성장하는 대규모 시장에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라이프스타일 소비자 브랜드와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회사다. 톰프슨은 시카고 상업·경제 클럽, 월드 비즈니스 시카고, 아서 M 브레이저 재단의 회원이며, 미국 프로풋볼리그(NFL) 다양성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Beyond Meat 이사회 이사(2015~2021년), Exelon 이사회 이사(2006~2012년), 맥도날드 이사회 이사(2011~2015년), 퍼듀대학교 이사회 이사(2009~2022년)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클리블랜드애비뉴 교육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다. 톰프슨은 퍼듀대학교에서 전기공학 학사 학위를, 엑셀시어칼리지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얀 괴츠
Jan Goetz
IQM퀀텀컴퓨터스 공동 창업자 겸 CEO

얀 괴츠는 양자 물리학자이자 차세대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는 IQM의 공동 창업자 겸 CEO다.

IQM은 HPC 및 특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개발하는 국제적인 양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뛰어난 팀을 자랑한다.
IQM은 시리즈 A2 펀딩(2022년)에서 1억2800만 유로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이는 유럽 양자 컴퓨팅 회사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괴츠는 뮌헨공과대학교에서 초전도 양자 회로에 관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헬싱키에 있는 알토대학교에서 마리 퀴리 펠로로 근무했다.
2020년 캐피털(Capital) 잡지는 그를 독일의 40세 이하 40인(40 under 40) 중 한 명으로 선정했으며, KAUTE 재단으로부터 기업가상을 수상했다. 그는 유럽 양자 산업 컨소시엄 QuIC에 소속되어 있으며 독일 연방 경제 상원의원, WEF의 디지털 리더 및 글로벌 혁신가로 활동하고 있다.

모리스 레비
Mauris Levy
퍼블리시스 회장

모리스 레비는 퍼블리시스그룹의 감독위원회 회장으로 비즈니스,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혁신 분야의 선두주자이다.

그는 1971년 IT 책임자로 퍼블리시스에 입사했으며, 1981년 그룹의 주력 기관인 Publicis Conseil의 CEO로 임명되었다.
그는 퍼블리시스를 위대한 프랑스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에서 광고 산업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리더로 변화시켰다.
2016년, 퍼블리시스의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레비 회장은 회사의 선구적인 정신에 따라 과거보다는 미래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그 결과, 두 개의 이니셔티브-퍼블리시스그룹을 통해 90개의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한 퍼블리시스90과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을 전담하는 글로벌 행사인 비바 테크놀로지 파리가 탄생했다. 통신 산업의 선도적인 인물로 널리 알려진 레비 회장은 2005년에 프랑스 뇌 연구소(ICM)를 공동 설립했으며, 페레스 평화 센터를 위한 국제 이사회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장야친
Ya-Qin Zhang
칭화대 AI 산업 연구소 학장, 전 바이두 총재

장야친 박사는 칭화대학교 AI 석좌교수이자 칭화대학교 AI 산업 연구소(AIR)의 학장이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바이두 총재를 역임했다. 바이두에 입사하기 전에는 16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으로 근무하며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 상무이사,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회장,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R&D 기업 부사장 겸 회장 등 다양한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그는 IEEE 및 CAAI의 펠로이며 500편이 넘는 논문과 60건의 미국 특허, 11권의 저서를 보유한 디지털 비디오 및 AI 분야의 최고 과학자이자 기술자 중 한 명이다. 그의 독창적인 연구는 디지털 비디오,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 분야의 스타트업 벤처, 신제품, 국제 표준의 기반이 되었다. 그는 200개 이상의 글로벌 파트너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개방형 자율주행 플랫폼 '아폴로' 얼라이언스의 의장 또한 맡고 있다.

MBA 소개

MBA INTRODUCTION

지식 강국을 향한 매일경제의 꿈,
세계 유수의 MBA와 함께합니다.

NYU 스턴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은 미국 최고의 경영 교육
대학원이자 연구센터 중 하나로,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높은 권위를 자랑합니다.
세계 비즈니스 중심지인 뉴욕의 역동성, 에너지는
물론 뛰어난 교수진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HEC Paris

유럽 최고 경영대학원으로 평가받는
프랑스 파리의 공립 경영대학원 HEC는
유니크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유럽의 다른 학교들과는 차별화된
리더십 교육으로
이론과 현장을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포천(Fortune) 글로벌 500대
기업 CEO들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IE 경영대학원

기업가정신과 혁신에 뿌리를 둔 IE는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최첨단 시설 및 최고의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육성합니다.
IE는 애자일한 접근법을 개발해 모든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20년에 걸쳐 만든 리퀴드 러닝
(Liquid Learning) 플랫폼은 오프라인 형태의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유연하게 오가며
역동적인 최첨단 학습 경험을 선사합니다.

장강경영대학원(CKGSB)

홍콩 최대 부호인 리카싱이 설립한
리카싱재단의 후원으로 2002년 베이징에
설립된 중국 최초의 사립 경영대학원입니다.
하버드대, 펜실베이니아대, 스탠퍼드대 등
세계 유수의 경영대에서 학위를 받은 교수진과
중국 GDP의 25%를 견인하는 동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명문 MBA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주요 교수가 참가해
성공하는 중국 기업의 비결을 전수합니다.

등록 절차 안내

REGISTRATION INFORMATION

참가 신청 (www.wkforum.org)

참가인원 선택

참가비 결제 방식 선택

참가비 결제
(카드 결제 또는 은행 송금)

결제 완료 메일 수령
(유료인증코드 확인)

회원 가입 *필수
(개인정보 및 유료인증코드 입력)

등록완료

참가비 안내

REGISTRATION FEE

구 분	조기등록 (7월 3일 ~ 8월 8일)	일반등록 (8월 9일 ~ 9월 1일)
일반	₩3,300,000	₩3,600,000
할인 (50%)	대학생,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자 후손	
	₩1,800,000	

*부가세 포함

제24회 세계지식포럼

테크노 빅뱅: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인류
(Techno Big Bang: Humanity on the Shoulders of Giants)

기간 | 2023년 9월 12일(화) ~ 14일(목)
장소 | 장충아레나 · 신라호텔 · DDP

조기등록

마감일은 8월 8일(화)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신청을 하셨으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반등록으로 전환되면서 할인 혜택은 자동 취소됩니다.

일반등록

마감일은 9월 1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일반등록 시에도 마감일까지 입금 완료하셔야 최종 등록으로 인정됩니다.

회원 가입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세계지식포럼의 다양한 이벤트와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계지식포럼 유료 참가자의 경우, 이메일로 발송되는 유료 인증코드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완료하셔야 참가신청이 완료됩니다.

안내사항

- 대학생, 장애인, 독립유공자 후손 할인:
  재학증명서(전업 대학생), 장애인 등록증(중증),
  독립유공자유족증(5대손까지) 등의 해당 서류를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는 분에 한합니다.
- 등록 취소를 원하는 경우 9월 1일(금) 오후 6시까지 취소 신청하시면 행사 종료 후 환불해 드립니다. (처리 수수료 제외)
- 참가비에 호텔 숙박요금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모든 세션에는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 자세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지식포럼 등록사무국
서울시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4층
Tel : 02-2000-2620~6 | E-mail : wkforumreg@gmail.com

매경미디어그룹 회사 소개

MAEKYUNG MEDIA GROUP

매일경제는 초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을 선도하며
지식강국의 내일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초일류 국가의 꿈을 실현합니다.

매일경제
MAEIL BUSINESS NEWSPAPER

월간 현대경영, 엠브레인 등의 조사에
의하면 매일경제신문은 '전국 직장 구독률
1위 신문' '서울 도심 구독률 1위 신문'
'14년 연속으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뽑은 명품신문' 등 오피니언 리더 및
구매력 높은 고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ABC협회로부터 발행부수
70만7,749부(2018년분)를 공인받은
명실상부한 1등 신문입니다.
매경미디어그룹은 기업들의 성공적인 광고·홍보
매체로서도 가장 효율적인 신문입니다.
매경미디어그룹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민일보, 파이낸셜타임스, 상하이TV 등 글로벌
미디어그룹 및 방송 제작사들과의 콘텐츠 교류,
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 지분 투자 등의 업무를
제휴해 매경미디어그룹의 특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최상의 글로벌 미디어 파트너십을
구성했습니다.

MBN

MBN은 1995년 국내 최초의 보도
전문채널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1일, 종합편성채널로
새롭게 출발한 MBN은 17년간 보도채널의
노하우와 함께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또 방송계
인포테인먼트 장르 열풍을 불러일으킨
재미와 정보·유익함을 갖춘 예능, 따뜻함과
진정성을 담은 착한 교양과 감동이 있는
드라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약 덕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채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힐링 예능'
'착한 교양' '스토리 교양' '리얼 관찰' 등
새로운 포맷의 MBN식 장르 개발이
그 원동력이 되어 새로운 MBN 시청자층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MBN은 차별화된
편성 전략과 문화와 세대를 뛰어넘는 명품
콘텐츠로 끊임없이 시청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청자와 공감할 것입니다.

등록부터 포럼의 주요 정보까지
세계지식포럼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세계지식포럼 홈페이지

www.wkforum.org

세계지식포럼의 다채로운
영상을 만나보세요.

**세계지식포럼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wkforum